

충주댐;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연구원 수석연구원 | 이광만
lkm@kwater.or.kr



충주호와 월악산은 珍景山水(진경산수)다. 월악산이 충주호의 물길을 만들었는지 충주호가 월악산을 품었는지 서로 잘 어울린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고 했던가, 더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곳을 돌아보면 누구나 泉石膏肱, 煙霞痼疾者(천석고황, 연하고질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중국 당나라 때의 田游巖(전유암)이라는 은사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샘과 돌이 고향에 걸린 것처럼, 자연을 즐기는 것이 고질병처럼 되었다는 뜻이니 이곳을 둘러보면 누구나 걸릴법한 병이다.

知者樂水, 仁者樂山. 智者動, 仁者靜. 智者樂, 仁者壽(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다 아는 論語(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어진 사람은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 산과 물이 따로 할 수 없고, 같이 어울려 신통을 부리니, 온갖 즐거움이 모두 이곳에 있다.

충주호와 나란히 하고 있는 월악산국립공원은 1984년 12월 31일에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1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충주댐이 공사를 끝내고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간 해가 1985년이니 거의 같은 시기에 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문

경시 4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북으로 충주호반이 월악산을 휘감고, 동으로 단양 8경과 소백산국립공원, 남으로 문경새재와 속리산국립공원과 같은 높은 봉우리와 심산유곡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야말로 물 맑고, 산 좋고, 사람살기 좋은 곳이다.

백두대간 연장선상에 있는 소백산맥에 위치하여, 거대한 암반과 기암괴석, 깊은 계곡과沼(소)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공원 내에는 월악산 영봉(1,097m)과 문수봉(1,162m),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다는 하설산(1,028m)을 비롯해 대미산(1,115m), 황장산(1,077m), 금수산(1,015m) 등 1,000m가 넘는 고봉이 즐비하며, 산림청이 선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5개나 포함되어 있다. 동서로 8km에 이르는 송계계곡과 16km에 이르는 용하구곡과 선암계곡 등이 꼽히며, 월광폭포, 자연대, 망폭대, 수경대, 학소대 등은 경치가 매우 빼어나다. 물, 산 그리고 경치가 조화를 이루어 구석구석 보고 즐길만한 곳이 많이 있다.

이중 신령스런 기운이 있어 예로부터 나라의 무사안녕을 바라는 제를 올리기도 해 국사봉이라고도 불리는 월악산 영봉에 올라 충주호와 청풍호를 바라보는 것이 으뜸이다. 사방이 거침없이 시원하게 뿜려 있어 충주댐의 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우암 송시열선생이 “깨달음을





장회나루와 제비봉 그리고 충주호 전경 도락산 암릉에 뿌리박은 소나무와 함께 한 필자

연는 데는 나름대로 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또한 즐거움도 따라야한다”라는 뜻으로 불렀다는 道樂山(도락산)은 황정산과 함께 盆栽花園(분재화원)이다. 능선에 점점이 박혀있는 바위들은 보석과 같고 암릉에 뿌리박은 노송은 바라볼수록 경이롭다. 충주호와 월악산 주변은 한 길 한 길 읊길 때마다 새로운 절경이 펼쳐진다.

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멀리 볼 수 있지만 곳곳의 속내를 모두 볼 수는 없다. 특히 계곡의 물 소리가 멀어지는 아쉬움이 따른다.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충주호와 청풍호이다. 옥순봉, 구담봉, 도담삼봉을 비롯하여 월악산 영봉과 제비봉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서로 찾아 자신의 재주를 뽐내던 곳이다. 퇴계 이황은 이곳을 찾은 뒤 여러 편의 시문을 남겼으며, 현풍 현감을 재직하던 김홍도는 ‘玉筍峯圖(옥순봉도)’ ‘畚人巖圖(사인암도)’ ‘島潭圖(도담도)’ 등을 통해 이 일대의 빼어난 경치를 담아냈다. 청풍부사로 재직중이던 안숙은 이 일대의 명승지를 다양한 시체로 풀고도 모자라 당대 유명한 화가인 이방운으로 하여금 이곳을 그리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게 국민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四郡江山參僊水石帖(사군강산삼선수석첩)이다. 靑山只磨靑(청산지마청)이라 할까, 예나 지금이나 그 풍광은 변함없이 없으니 자연이 주는 즐거움은 세월의 경계가 없다.

이방운이 그린 화첩에는 시문도 붙어있다. “명월이라 부르는 누각에는 그림자 나타나고 청풍이란 땅은 바람 불

기를 기다리지 않노라. 물의 성질은 투명하고 맑아 모든 빛을 받아 반사하며 산의 모습은 높고 기괴하지만 홀로 공지를 가졌네. 흘러가는 금빛 물결은 닦은 거울처럼 넓게 트이고 물위에 떠오르는 석벽은 펼쳐놓은 병풍처럼 길어라”. 寒碧樓(한벽루)에서 金屏山(금병산)을 바라보고 그린 금병산도에 있는 시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자연에 몰입하여 일체되는 작가의 감성이 진하게 느껴진다. 인간이 만들거나 과학기술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온전한 자연의 세계이다.



단원 김홍도가 말년에 그린 단양 8경중 하나인 옥순봉도 (호암미술관소장)



조선 후기의 화가 이방운의 화첩에 묘사된 도담과 금병산(한벽루) (국민대박물관소장)

충주댐 주변은 낮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가진 어둠속에 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사물은 대비되어야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충주댐의 야경이 그렇다. 어둠속을 비추는 조명은 충주댐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게 한다. 충주댐에는 호랑이 그림자가 살고 있으며, 환상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윽해진 밤 눈길을 돌려 호수를 보면 월악산에 달이 오르고 그 달빛이 충주호에 어린다. 月下獨酌(월하독작).李白(이백)의 시 한수가 생각난다. 그렇다고 호수에 뛰어들지는 말자. 깊이가 족히 60~70m는 될 것이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진 충주댐의 야경
(출처 : 연합뉴스)

根深之木風亦不兀(근심지목풍역불울). 源遠之水旱亦不竭(원원지수한역불갈).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니, 꽃이 좋고 열매도 많네.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도 끊이지 않고 솟아나니,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르네. 심산유곡에서 흘러들어 충주댐에 모인 물은 우리나라 심장부를 흘러 대지를 적신다. 때로는洪水(홍수)를 잡아 백성을 보호하니 나라의 防牌(방패)요, 마르지 않고 곡식을 살찌우는 穀水(곡수)이니 우리의 보배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8월에는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탄금호에서 열렸다. 81개국에서 1,936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분명하다. 강을 따라 흐르는 것이 어디 물뿐이랴. 강을 따라 사람도 흐르고, 예술이 흐르고, 이제는 지구상 모든 인종들이 모여 다함께 즐기는 곳이다. 사람 가는 곳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 더 가고 싶은 곳, 바로 충주댐이다. 淸風朗月不用一錢買(청풍랑월불용일전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즐기는데 한 푼 들지 않으니, 일상을 떨쳐버리고 그곳으로 떠나보자. 단언컨대 충주댐은 본 것 보다 보지 못한 것이 더 많다.

